

# ‘신한알파’ 해외주식 쉽게 거래... 모바일로 주식 선물

## 증권가의 디지털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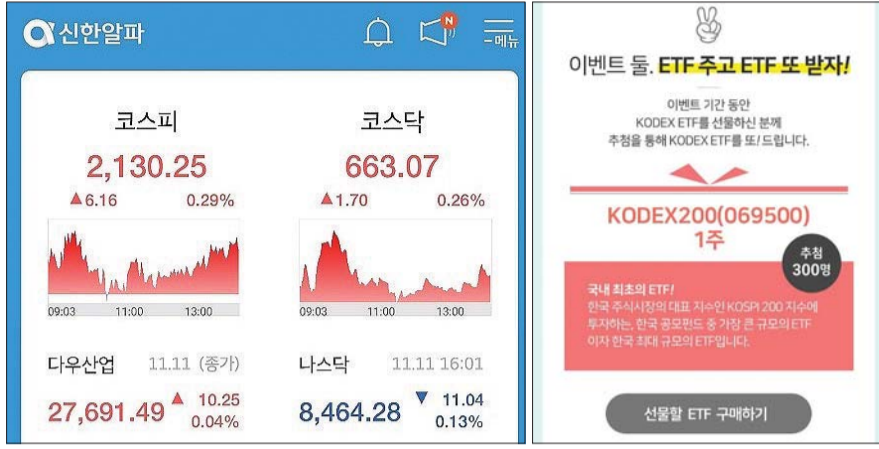
###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간편투자 서비스’로 가상 해외여행 하듯 종목선택 6천원 부터 소수점 구매 가능

신한금융투자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쉽다’, ‘간편하다’로 압축된다. 신한금융투자가 노린 고객층은 주식 입문자 등 초보자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주식 입문자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따뜻한 금융’이란 회사 가치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디지털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입문자도 함께할 수 있는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 ◆ SNS 처럼 쉬운 ‘해외주식 간편 투자 서비스’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게 해외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그룹 앱 ‘신한알파’(왼쪽)와 스톡기프트 모바일 화면 캡처.

가 출시한 ‘해외주식 간편투자서비스’를 통해서다. 주식 입문자나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마치 게임 캐릭터를 연상케 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투자 캐릭터로 가상 해외여행을 하며 종목 선택을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 등 투자 정보를 획득한다. 해외주식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초보자들의 통념을 깬 획기적인 서비스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주식거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신한알파나 신한금융그룹 앱의 ‘신한플러스’ 메뉴에서 ‘글로벌 투자 여행’에 접속하면 된다. 매수할 때 자동 환전 시스템이 적용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주문은 최소 6000원 이상부터 0.01주 단위로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86개 종목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다. 특이점은 ‘소수점 주식구매’가 지원된

다는 점이다. ‘소수점 주식구매’는 1주 단위로 거래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방식이다. 예를 들어 약 210만원 수준의 아마존 주식도 최소 0.01주(약 2만1000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거래방식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증권업계 최초로 신한금융투자의 ‘소수점 주식구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덕분에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매매를 증개할 때 구분예탁과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우량주 소수점 투자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증권사 역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때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투자자 간 ‘주식 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식도 기프트콘으로 ‘스톡기프트’ 이제 주식도 커피나 음료수 처럼 간편하게 모바일로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의 ‘스톡기프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7년 3월 특허 출원한 스톡기프트는 계좌번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이용이 간편하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해 간편하게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계좌가 있다면 신한금융투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신한알파에 접속해 받으면 되고, 없다면 신한알파나 ‘신한플러스’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스톡기프트를 활용해 직접 자녀에게 선물해 봤다는 증권사 관계자는 “용돈보다 훨씬 좋은 선물”이라며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각광... 성수기 실적개선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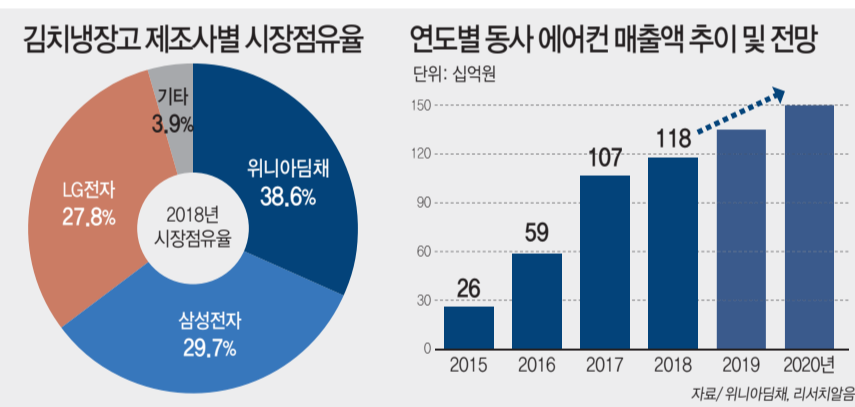
## 株라쿨라의 주목

### 위니아딤체

젊은세대 중심 ‘스탠드형’ 인기 태국에 공장 설립, 본격 가동으로 에어컨·세탁기 등 수익향상 기대

“최근 김치냉장고가 뚜껑형에서 스탠드형으로 바뀌며 과일, 채소, 쌀 등 다양한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재도약하고 있다.”

매년 11~12월은 김치냉장고 시장의 성수기로 평가된다.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은 지난 2015년 1조300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정체된 상황이다. 하지만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을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3일 “김치냉장고 시장이 재도약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치냉장고 시장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교체주기 도래, 스탠드형으로의 전환, 젊은층의 수요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위니아딤체는 1999년 설립된 가전 제품 전문 기업으로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대우그룹에 속해 ‘대우위니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6월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다른 계열 상장사들이 모두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차별화를 위한 조치가 판단된다. 가전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다. 김치냉장고뿐 아니라 전기밥솥,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 중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젊은 세대와 1인 가구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뚜껑형에 비해 소비자 판매가 기준 3~4배 가량 비싸 더 이상 정체 시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니아딤체는 상호 개명에서 알 수 있듯 김치냉장고 사업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 생활가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어컨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5%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위니아딤체를 비롯해 캐리어, 대우, 센추리 등 다른 중견 업체들이 나머지 15%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터라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최 수석연구원은 분석했다. 위니아딤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태국에 공장을 설립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매출원가와 관공비 절감을 통해 승부를 보려는 계산이다. 현재 공장 준공과 설비도입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올 연말부터는 본격 양산 계획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전까지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생활가전 대부분이 계열사 ‘대우플러스’에서 외주 생산됐는데 올 연말 에어컨 생산을 시작으로 태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전망은 밝다. 계절적 비수기로 그동안 적자를 봤으나 전체적인 사업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적자 규모를 지난해 313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젠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본격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송태화 기자

## 증권 다이제스트

### 키움증권 ELS 청약 1만원 이벤트

키움증권은 ELS(추가연계증권) 청약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공모 ELS를 매수하고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1월 50명, 12월 50명에게 현금 1만원을 선물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 판매중인 ELS는 2종이 있다. 키움제1160회 ELS는 만기 3년으로 예상 수익률은 세전 연 9.5%다. 기초자산은 유로스톡스50지수, SK하이닉스 보통주, 기아차 보통주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9.5%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송태화 기자



### 한화자산운용 아시아고배당펀드 100억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한화밸류파트너스 아시아고배당펀드’가 출시 10일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설정액은 103억이다. ‘한화밸류파트너스 아시아고배당펀드’는 중국, 홍콩, 한국 등 범아시아 국가들 중 우수한 현금흐름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아시아 가치투자 전문운용사인 홍콩 밸류파트너스(Value Partners)가 위탁 운용하는 펀드이다. 해당 펀드는 밸류파트너스가 홍콩에서 운용중인 ‘밸류파트너스고배당펀드(Value Partners High Dividend Stocks)’와 동일한 운용 전략을 추구한다. /손영기 기자

## 윤수영 키움증권 부사장 사퇴 배경은

### ‘인터넷銀 실패 책임’ 해석

윤수영 키움증권 부사장(사진)이 사표를 던졌다. 윤 부사장은 최근 키움증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된 지 8개월 만이다. 증권가는 윤 부사장의 사퇴를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다우이금융그룹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실패하며 그에 대한 책임론이 거센 상황이었기 때문. 당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을

에도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아 탈락했다. 윤 부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키움증권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왔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키움증권 관계자는 “윤 부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부사장은 증권가에서 빠가 굵은 인사다. 1987년 쌍용증권(현 신한금융



투자)에 입사하며 증권계에 발을 들인 후 프라임투자자문, C I 투자자문을 거쳐 2000년 키움증권에 입사했다. 입사 20주년을 앞두고 키움을 떠나게 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부사장에 대해 “원칙적인 성격으로 열정도 많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키움증권이 짜게 될 새로운 판 역시 관심사다. 윤 부사장이 떠나게 되면 사 내이사는 김익래 다우이금융그룹 회장과

이현 키움증권 사장 둘만 남게 된다. 숙원사업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실패하며 추후 사업과 실적에 대해 위기감이 조성된 상황이다. 인터넷 증권사로 출범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리테일 부문에서 14년째 점유율 1위를 지킬 정도로 강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선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올해 예상 밸류에이션은 다른 증권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수익 다각화와 투자은행(IB) 비중 확대 등 사업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